

다산과 목민심서 레포트

학번: 201521733

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이름: 염찬호

과목명: 사 시대와 정신

제목: 다산과 목민심서에 비추어 본 현재 우리들의 삶

* 목차

1. 정약용의 삶
2. 목민심서 집필의 특징
3. 목민심서에 비추어 본 우리들의 삶
 - ① 부임
 - ② 율기
 - ③ 봉공
 - ④ 예민

1. 정약용의 생애

다산의 아버지인 정재원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벼슬에서 하직하고 고향인 남양주시로 돌아왔다. 정약용은 정재원이 고향으로 귀농한 해인 1762년 6월 16일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현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이다. 정재원이 귀농한 해에 정약용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의 아명을 귀농(歸農)이라 했다. 본관은 나주 또는 압해(押海)이고, 이름은 용(鏞)으로 생략해 부르기도 했었다. 자는 미용(美鏞)이고, 호는 사암(俟庵), 여유당(與猶堂), 열초(冽樵), 죽옹(竹翁), 탁옹(擲翁) 등 많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산(茶山)이라는 호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다.¹⁾

진주목사 정재원의 4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난 정약용은 4세에 천자문을 외웠고, 7세에 한시를 지었으며, 10세 이전에 “삼미집”이라는 자작시집을 편찬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정약용은 1776년 15살 때 관례를 올리면서 서울 살이가 시작된다. 15세 전까지는 형님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과거시험에 기본이 되는 유학의 기초 공부를 배웠다. 그리고 한시를 배웠는데 다산은 한시를 잘 지었다. 1782년 아버지의 지방관 일 때문에 서울에 있었다. 청년기라고 하기엔 나이가 조금 어리긴 하지만 정약용은 청년기 때 소과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22세인 1783년에 소과에 합격했다. 형님들은 실패하고 셋째가 급제한 셈이다. 그러고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유생생활이 시작되었다. 1학기 뒤에 가을에 둘째 형님이 소과에 합격하고, 셋째 형님은 아주 늦게 소과에 급제했다. 그리고 넷째 형님은 과거에 뜻이 없는 사람이었다. 성균관에 들어가기 전에 다산은 성호학과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호이익의 학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성호선생님은 176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배우지는 못했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현의 처남인 이벽, 매형, 정약전, 권철신(성호의 제자 가운데 으뜸)과 같은 사람들로 부터 성호학의 진보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었다. 다산은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1783년 가을 직접 천주교에 대해 알아보자하여 아버지가 북경으로 사신으로 갈 때 따라갔다. 북경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책을 가지고 1784년 3월에 돌아왔다. 이벽을 만나서 책을 다 전해주고 이벽은 열심히 연구해서 다산 형제들을 포섭해서 전파했다.

당시 성균관 유생인 정약용의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아꼈던 정조의 도움으로 인해 자신의 식견과 포부를 자유롭게 펼 수 있었다. 1789년(정조 13년) 부터 1800년(정조 24년)까지 10여 년 동안 정약용은 규장각의 초계문신(抄啓文臣)²⁾에 선발 되 젊은 문신으로서 학문을 더 깊이 공부했고, 과학기술 등 새로운 문명에 관심을 가진 북학과와 지적 공감대를 가짐으로써 국리민복³⁾을 위한 정책에 자신의 과학 지식과 재능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강에 배다리를 설계하고, 수원성을 축조할 때에 성제설(城製說)을 제안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실용화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1)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네이버 지식백과>, 2002년 12월 10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4729&cid=12941&categoryId=42941>, (2015년 6월 3일).

2) 조선 후기에 규장각에 특별히 마련된 교육 및 연구과정을 밟던 문신들.

3) 나라와 국민의 복리.

그 후로는 1794년에는 경기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경기지역을 감찰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1795년 가을 겨울 사이에는 금정찰방을 지냈고, 1797~1799년 36세 때에는 황해도 곡산부사로 재직하여 지방 수령 2년 만에 민정, 재정, 형정 등 여러 방면에서 정치상의 업적을 올렸고, 왕권 강화, 국정 쇄신이라는 그의 기본 경제 사상을 지방 행정에도 구현하려고 애썼다.⁴⁾ 안타깝게도 정약용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았지만, 조정에서는 항상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었다.

1799년 5월에는 형조참의⁵⁾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천주교와 연루된 모함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어나게 되었다. 노론을 중심으로 탕평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인과 소론도 정권에 참여시켰었던 정조가 1800년 6월에 서거하자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고 정적을 타도하기 위해 신유사옥⁶⁾을 일으키자 정약용은 이에 연류 되어 경상도 장기 지역으로 유배되었다.⁷⁾ 천주교 문제 등으로 여러 번 유배생활을 하던 정약용은 정조의 신임이 두터워 큰 위기를 겪지는 않았으나, 정조 사후 정치에서 배제되고 신유사화가 일어나면서 형 정약중이 참수를 당하는 등 큰 많은 주변 인물들이 참화를 당했다. 정약용은 목숨은 부지하였으나 황사영 백서 사건⁸⁾으로 서울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으나 11월에 다시 전라도 강진으로 18년 간 유배되었다. 강진에서는 유교 경전 연구에 열중하여 '상례사전', '주역사전', '상서고훈', '상서지원록' 등을 저술하였고, 사서(四書)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1818년 가을 강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정약용은 사대부로서의 벼슬길은 막혔지만, 인근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강진에서 미처 못다 한 학문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1818년에 초고본 작업을 하던 '목민심서'가 1821년에 작업이 완료되었고, '경제유표', '흙흙신서'등도 저술하였다.

1822년 정약용은 자신의 회갑을 맞아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자찬묘지명'을 지었다. '자찬묘지명'은 유배에서 돌아온 지 4년 뒤 회갑 때 지나온 파란의 삶을 회고하며 지은 것이다.⁹⁾

그리고 정약용은 1836년에 고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2. 목민심서의 집필 특징

목민심서는 조선사회의 수령인 사람들, 수령으로 일했던 사람들, 지방통치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자기와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이다.¹⁰⁾ 자신들끼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체의 그들의 입장, 생각, 목표, 걱정, 내면적 욕구,

4) 조성을, 「목민심서」, 『아주 위대한 고전 : 사회과학』, pp.28~29.

5) 조선시대 육조(六曹) 가운데 형조(刑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6) 조선 말기인 1801년에 일어난 천주교도 탄압사건.

7) 권영락, 「다산정약용의 지리관에 대한 이해」, 『지리교육논집』, 37권 0호, 1997, pp.132~142.

8) 천주교도 황사영이 북경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로 인해 발생한 사건. 황사영은 교회를 재건하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프랑스 함대를 파견해 조선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9) 자찬묘지명.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7936&cid=46649&categoryId=46649>, (2015년 6월 4일).

일상생활, 경험 등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글쓰기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나 자신이라면’, ‘당신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의 서술이 구체성을 부각시켜준다. 또한 마치 책을 읽는 독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쓰여 졌다. 목민심서의 특징은 다산의 다른 어떤 저술들보다도 다산 자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민간에 오래 있어 잘 아는데’, ‘내가 그를 만났는데’ 등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느낌을 서술하고 자신의 시, 편지 등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다.

목민심서에서는 당대 선인으로서의 책무의식을 강조한다. 그래서 ‘자기 닦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수령 노릇은 제도의 규정을 넘어서 개인의 사람됨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민심서의 목민은 ‘임금이나 원이 백성을 다스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곧 치민(治民)이라고 할 수 있다. 기른다고 해서 임금이나 원이 백성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목민에서 목은 통치자를 지칭하고 통치를 뜻한다. 또한 목민은 섬김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상위집단이 하위 집단을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이 자신의 정치철학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정약용의 핵심적 정치철학은 ‘탕론’, ‘원정’, ‘원목’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전부터 다양한 목민서들이 저술되어 왔고,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왔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저술되어 현전하는 목민서들은 주로 17세기부터 19세기에 많이 출현한 것이다. 알려진 목민서는 23여종에 이르는데 대다수가 조선 후기에 출현한 것들이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 목민서가 많이 출현한 이유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사대부들의 기본 입장은 ‘본분을 자각하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18,19세기를 지나면서 정치적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목민 관련 서적들이 많이 집필되었다.

3. 목민심서에 비추어 본 우리들의 삶

목민심서에는 부임, 율기, 봉공, 예민,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황, 해관의 순으로 각 6정씩을 달고 저술되어 있다. 나는 이, 호, 예, 병, 형, 공보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부임, 율기, 봉공, 예민을 바탕으로 목민심어와 빗대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비교해보려고 한다.

제1부인 부임6조에서는 부임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먼저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민이라는 자리는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백성이 그 해를 입어 괴로움을 당하고 길바닥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목민의 자리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임할 때 행장은 본래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목민으로서 조정에 하직할 때에는

10)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pp176~187.

과묵해야 할 필요가 있고, 뽐내고 잘난 체해서도 안 되고, 아전과 하인을 경솔하게 대하여 체모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

목민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임할 때의 태도와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다. 우리사회는 관직에 부임할 때에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부임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형식적이고 화려한 치장을 하는 데에 돈을 쏟아 붓고 검소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과묵함과 겸손함보다 우쭐되는 모습과 뽐내려는 모습만이 가득하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경솔히 대하는 경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의 귀천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있다.

제2부인 율기6조에서도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단속하는 일과 백성에 대한 사랑의 자세를 갖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바른 몸가짐을 이야기한다. 일상생활을 절도 있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대할 때에는 장중하게 하는 것이 수령의 도이다. 또한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라고 하며 술을 끊고 여색을 멀리하며 방탕해져서는 안 되며 시나 읍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전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큰 잘못으로 본다. 청렴한 마음도 중요하다. 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부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 그리고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뇌물 받지 아니함과 선물을 조심해야 한다. 올바른 목민관은 백성에 앞서 집안부터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청탁하는 것을 들어줘서도 안 된다. 또한 씩씩이를 절약해야 한다. 공적인 물건과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현명한 수령이다. 마지막으로 베풀기를 좋아해야 한다. 절약만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진다. 베푸는 것은 덕을 심는 근본이다. 그리고 자신의 녹봉에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남을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¹¹⁾

요즘 공직자들을 보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과 더 많은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면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무작정 싸우거나 성을 내서 우리나라 국회의 망신을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술과 여색을 멀리하라 하였지만, 공적인 돈으로 유흥문화를 즐기는가 하면 업무를 미룬 채 골프 등의 값비싼 여가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있다. 집안을 잘 관리하지 못해 집안의 자녀나 배우자가 비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고, 청탁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성완중리스트'와 같이 공직자가 직접 뇌물을 받아 화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늘날의 공직자들은 베품과 거리가 멀다. 참된 베풀기란 자신의 녹봉에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했는데, 공직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고, 심지어 국민들이 낸 세금조차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3부인 봉공6조에서는 덕을 널리 펼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군수와 현령은 본래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하고, 덕으로 교화함을 널리 펴는 것'이 직분인데, 오늘날에는 오직 감사에게만 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경'에서 이르기를 "신하는 임금의 팔

11) 정희태, 「다산 정약용의 정치철학을 통해 본 공직윤리 연구」, 『민족사상』, 제4권 제2호, 2010, pp.126~134.

과 다리와 귀와 눈이 된다.” 임금이 힘을 사방으로 퍼려고 하니, 군수와 현령 된 자들이 따라서 사방에 힘을 퍼야 한다는 뜻이다. 법도를 지키는 비록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을의 관례라 할지라도 국법에 현저히 위반되고 벗어난 것이면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이다. 그리고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만약 상관의 명령이 공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굽히지 말고 꾀꾀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감사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써, 수령이 비록 감사와 오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공적으로 보내는 문서는 아전들에게 맡기지 말고 꼼꼼히 생각해서 자신이 직접 쓰도록 해야 한다. 공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도를 각별히 이행하고 새로이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만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차출되는 일에 있어서는 사고나 병을 핑계 삼아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¹²⁾

임금과 현령과 군수 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사방에 힘을 퍼야한다고 말하는 목민심서와 달리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TV나 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법적 판결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죄를 감면해 주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지 못한 판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실행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공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쓰지 않고 비서나 대필해주는 사람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늘날의 공물에 해당하는 세금도 법대로 시행하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국민들과의 상의를 통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은 발령받는 상황에 있어서는 편한 자리만 얻어서 일하려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직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제4부 에민 6조에서는 오늘날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다.¹³⁾ 먼저 노인을 잘 봉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형식적인 것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달 그믐날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리는 등의 노인들을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어린이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한다. 부모를 잃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시설에서 거두어 길러지게 하고,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울 것을 당부했다. 가난한 자의 구제도 에민에서 언급하고 있다.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을 ‘자궁’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가난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므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을 당한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지낼 수 있게 해준다. 또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때에는

12) 이광모, 엄운섭, 김형준,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4권 제3호, 2010, pp.146~156.

13) 장동희,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의 복지행정사상」,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의 복지행정사상129』, pp.132~144.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시행해야한다고 한다. 또 병자를 돌볼 필요도 있다. 불구자와 중환자에 대해서 몸으로 치르는 모든 노역을 면제해주어야 한다. 이것을 관질이라고 하는데, 장님, 병어리, 절름발이, 고자 같은 사람들은 군적에 올려서는 안 되고 잡역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재난에서도 백성들을 구해야한다.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구하고 건져야 하는데 이것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난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에 돕는 것 보다 낫다고 한다.¹⁴⁾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복지도 물론 잘 발달되어 있지만 목민심서에 비추어본 현재 복지제도는 그리 완벽한 복지제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노인봉양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봉양인데 요즘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마음으로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만 봉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오늘날에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다산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요즘 아동폭행이 뜨거운 감자로 불릴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자식들을 방치하는 태도를 가진 부모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목민심서에 나오는 복지는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모두 다 골고루 사용하고 있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재해와 액운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재난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에 돕는 것 보다 낫다고 했는데, 현재 메르스 사태는 그러지 못한 채 예방은 권유만 할 뿐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목민심서에는 그릇된 우리사회의 모습이 개선되어야할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이상적인 수령상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직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직자는 양떼를 기르는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잘 돌보고 잘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내면의 도덕적 교화에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꼭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노인을 봉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이들을 잘 보살필 책임이 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다. 썩어가고 있는 우리사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목민심서를 지침서 삼아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4) 박병현, 이한옥,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008, pp.58~65.

참고문헌

1. 조성을, 「목민심서」, 『아주 위대한 고전 : 사회과학』.
2. 권영락, 「다산정약용의 지리관에 대한 이해」, 『지리교육논집』, 37권 0호, 1997.
3.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pp176~187.
4. 정희태, 「다산 정약용의 정치철학을 통해 본 공직윤리 연구」, 『민족사상』, 제4권 제2호, 2010.
5. 이광모, 엄운섭, 김형준,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4권 제3호, 2010.
6. 장동희,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의 복지행정사상」,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의 복지행정사상129』.
7. 박병현, 이한옥,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008.
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선비, <네이버 지식백과>, 2002년 12월 10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24729&cid=42941&categoryId=42941>.
10. 자찬묘지명,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7936&cid=46649&categoryId=46649>.